

전북대 김지영 교수, 한국정신간호학회 창립

전북대학교 김지영 교수(간호대학 부학장 간호학과)가 제27대 한국정신간호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1971년 창립된 한국정신간호학회는 정신간호 실무와 교육, 연구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문 학술단체로,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정책포럼,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정신간호 간호 분야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1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간호대학에서 정신간호학 교육과 연구를 오랫동안 이끌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재난 간호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쳐왔다.

김지영 신임 회장은 "정신간호학회가 시대적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학술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회지의 SCOPUS 등재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김지영 교수

결핵 퇴치 위한 크리스마스 쉼 모금 동참

전북자치도, 결핵 예방·치료 자원 마련... 도민 관심·참여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가 결핵 예방사업 자원 마련과 도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2025년 크리스마스 쉼 모금사업'에 동참한다.



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개발도상국 지원, 예방 홍보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지난해 세계 쉼 콘테스트 1위를 차지한 '브레이발스' 캐릭터가 올해 시공로 다시 등장해 친근한 디자인과 응원 메시지를 담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밝고 유쾌한

전북도는 1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과 임한 대한결핵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쉼 증정식을 개최했다.

전북자치도 직원들도 매년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모금사업은 대한결핵협회 주관으로 12월까지 총 30억 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 목표액은 1억 7천만 원이다. 모금으로 조성된 결핵퇴치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치료 지

캐릭터 효과로 더 많은 도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결핵은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지속적인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결핵예방 관리사업 자원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쉼 모금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숙희 회장, 남원 희망 나눔 캠페인 1호 기부

남원시는 희망2026 나눔 캠페인에 매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김숙희 회장(법무부 법무위원 남원지주협회)이 올해도 남원시 1호 기부자(1천만 원)가 되었다고 밝혔다.

성금 전달식은 캠페인이 시작되는 첫날인 12월 1일, 시장실에서 진행되었다.

김숙희 회장은 남원시 최초 '나눔소사이어티(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가입자로, 2010년부터 17년째 이웃돕기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 나눔문화를 이끌어 오고 있다.

김숙희 회장은 "힘든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최경식 시장은 "매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김숙희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남원시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기반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성금은 주민복지과(063-620-6333)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한도희, GeoAI데이터학회 '우수발표상' 수상

전북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인공지능융합연구소 연구실의 한도희 석사과정생(지도교수 염종민)이 '2025 GeoAI데이터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생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도희 학생은 '딥러닝 및 물리모델을 활용한 다중위성 융합 기반 시·공간 초해상도 지표반사도 산출 기법'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연구는 GK-2A, Sentinel-2, KOMSAT-3·3A, PlanetScope 등 다양한 위성 자료를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시·공간 초해상도 지표반사도를 정밀하게 산출하는 기술을 제안한 것으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 환경 모니터링, 농업 및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도희 석사과정생은 "연구를 이끌어 주시고 늘 세심하게 지도해 준 염종민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연구하며 큰 힘이 되어준 인공지능융합연구소 동료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한도희 석사과정생

남원시, 국외 도시 정책연수 성과보고회

남원시는 1일 오전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행정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해 실시한 국외 도시 정책연수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달 28일 실시했던 성과보고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세 팀에 대해 시상을 실시, 수상한 세 팀은 연수 과제의 창의성, 계획 준수도, 정책 제안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이날 발표에서는 △ 구역별 랜드마크형 공공시설물 설치, △ 광안루터~공설시장 관광 루트 구축, △ 외국인 정착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많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외도시 정책연수는 단순히 견문을 넓히는 것을 넘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투자라며, '이번 보고회에서



공유된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제 남원시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돈협회 전북, 1700만원 상당 돼지고기 기탁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도청에서 (사)대한한돈협회 전북도 지회가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1,7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현섭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한병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대한한돈협회 전북도지회는 2016년부터 10년째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한돈 나눔행사'를 꾸준히 이어오며, 현재까지 누적 13억 5,3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안동업계가 사육환경 악화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회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나눔행사를 준비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돼지고기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현섭 대한한돈협회 전북도지회 부회장은 "앞으로도 매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한결같이 나눔활동을 실천해 온 한돈협회 전북도지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2025 고창 AI·에듀테크 체험의 날 성료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최근, 고창살기체육관에서 2025 고창 AI·에듀테크 체험의 날을 성황리에 마쳤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학생·학부모·교직원이 AI·에듀테크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미래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 방향(전북교육 2025-001)과 디지털 기반 미래역량 강화 정책에 따라 고창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체형형 교육의 장을 조성하고자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학부모·교직원 1,000여 명이 이상이 참여하며, AI·에듀테크 기반 체험 프로그램 35종 운영과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보급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3종(미리캔버스, 퀴즈앤, 퀴위티)을 직접 활용해보는 체험과 이해, 수업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연수가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디지털 도구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사장에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부스가 구성되어 있으며, AR·VR 기반 콘텐츠 체험(AR 퀴비존, VR 어드벤처 등), AI 창작 체험(SUNO AI 음악 AI 그림·포토 생성 등), 코딩·로봇 체험(VINU 로봇 코딩, 드론 축구, 오조봇 등), 디지털 제작 체험(키링·키홀더·굿즈 제작 등), 디지털 윤리·게임피케이션 체험 등 총 35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이번 행사의 핵심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보급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3종(미리캔버스·퀴즈앤·퀴위티)을 직접 활용해보는 체험과 이해 프로그램이 별도 운영된다는 점이다. 14년 부스의 '소프트웨어 체험관'은 교원 직무연수 이수 필수 과정으로 편성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추진, 오조봇 등), 디지털 제작 체험(키링·키홀더·굿즈 제작 등), 디지털 윤리·게임피케이션 체험 등 총 35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조경훈·조훈민 부자, 남원 동충동에 성금 기탁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차남)는 관내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조경훈·조훈민 부자가 지난 1일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조경훈 씨는 아내와 함께 17년째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들 훈민 씨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기부에 동참하고 봉사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조훈민 씨는 "아버지와 함께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뜻깊으며, 이번 기부가 누군가의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차남 동충동장은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신 조경훈·조훈민 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이영면 새마을부녀회, 김장 김치 기부

남원시 이영면 관계지는 최근, 면 새마을부녀회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정성껏 담근 김장 김치 20박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김장 김치는 면 맞춤형복지팀과 협력해 대상 가정에 직접 전달되었으며, 김치가 담긴 박스마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의 손길이 담겨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영면 부녀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영면 이영면장은 새마을부녀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 나눔 활동을 통해 좁은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기관장 등 장애인식 개선 교육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최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관장 및 소속직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과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함께 생각해보는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이란 주제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 대해 실생 활과 매체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차별과 편견을 점검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으뜸환경건설 대표, 김제시 고향사랑 지정기부

김제시는 1일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주로 진행하는 으뜸환경건설의 주범 대표가 작년 200만원 기탁에 이어 올해에도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범 대표는 "김제시 지정기부사업에 깊이 공감하여 기부하게 되었다"며, "저와 같이 김제시를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여 김제시 아이돌봄센터가 계획대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고향사랑기부를 해주신 주범 대표에 감사를 표한다"며,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꼭 운영될 수 있도록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지정기부사업인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일시·긴급 돌봄이 필요한 6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제=곽도태 기자



MG새마을금고 전주시 등, 북한이탈주민에 김장비 지원

MG새마을금고 전주시·완주군협의회는 최근,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행사비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지원금은 절당배추 등 김장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되었다.

앞서 협의회는 9월 27일 추석을 맞아 북한이탈주민 50가정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행사를 열어 따뜻한 정을 나누는 바 있으며, 이번 김장 행사 지원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공동체 내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새마을금고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김종만 협의회장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 이번 김장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